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 시인 해은공(海隱公)의 삶



권오신
칼럼니스트, 직윤공파회장

〈8월호에서 계속〉
해은공(海隱公) 시인(詩人)은 1960년부터 80년 초까지 영남한시원(嶺南漢詩院, 경주 서부동 헌법원 건너편 소재) 대표 이동중(李東鐘, 90년대 작고)옹(翁)과 함께 전국한시백일장(全國漢詩白日場)에 참여하시거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으시는 등 50년대 말부터 20여 년이 시작활동(詩作活動)이 가장 돋보이시는 시기이었으며 1970년에 창간한 시문춘추(詩文春秋)의 편찬위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황금기를 보냈다.

영남의 유림(儒林)들과 문유(交遊), 전국의 명승지를 관산(觀山)하시면서 한시를 짓고 시조창(詩調唱)을 하시는 모습은 백학(白鶴)처럼 고고하고 백석(白皙, 몸 색이 희고 빛나 다)의 모습은 얼음을 담은 향아리처럼 맑고 깨끗한 빙호(氷壺) 같았다고 한다.

해은공은 새벽 4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서책(書冊)을 끼고 살았다. 벼루 다섯 개와 못 300여 자루를 망가뜨렸으며 서안(書案)과 책상을 두고 옮겨가면서 글을 읽고 지었다고 가첩(家牋)에 기록했다.

또 포항에서 살았던 70년대 말부터 염불(念佛) 삼매(三昧)에 자주 빠져들어 불학(佛學)에도 심오한 경지에 도달, “유학도 한 뿌리에 나왔다.”고 정리하는 등 노년에 들어서는 불교와 인도, 티베트 불교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모선돈족(慕先敦族)의 송조정신과 위선(爲先)하시는 마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는 누구나 어려웠던 시기. 1981년 중앙화사회(中央花樹會)가 발행한 시조 태사공 재실 중창기금 모금을 위한 육천원 짜리 성금권(誠金券, 사진 자료)을 진족들에게 직접 권유했으며 당시 경주 죽전들이 부담한 헌성금이 상당했었다고 전해진다.

또 1960년대(추정)에 지어진 권문의 세덕가(世德歌)를 보급했다.(사진 참조)

중창된 시조태사공 재사(齋舍)나 경주 윤곡서원은 안동권문의 정신적 요람이요, 한국 사회에 자랑하는 권문사상의 근본이 되는 곳이어서 기금을 보태고 봉안축문(奉安祝文)을 지었으며 경주지역 서원과 향교 춘추향의 집례(執禮) 대축(大祝) 향유사(鄉有司)를 확인해 주는 서원(書院) 망기(望記)가 고서(古書) 더미에서 같이 발견되어서 한시(漢詩)의 변천사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가 됐다.

해은공은 굴원(屈原, 기원전 340~278 초나라 시인이자 정치가)의 어부사(漁父詞) 등 시작(詩作)과 관련된 책들을 빼면 정관정요(貞觀政要), 사기열전(史記列傳), 통감(通鑑), 여씨춘추(呂氏春秋), 주역(周易), 동경독지(東京讀誌), 회재선생집(晦齋先生集)과 같은 역사서가 유독 많았다.

시인(詩人)이 태어나고 1970년대까지 살았던 경주와 신라문화에 대한 내용도 깊어 200여 편의 한시(漢詩) 가운데 경주 얘기가 당연히 많다. 그중에서도 신라 삼기팔교(三奇八怪, 경주에서 전해지는 기이하고 괴이한 형상)를 소재로 한 한시(漢詩)는 공의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특히 금장낙안(琴藏落雁)을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 실린 거문고의 명인 신라 백결선생이 죽은 후 선생의 거문고를 금장대 위에 숨겨두었는데, 기러기가 날아와서 밟으니 거문고는 화석이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금장낙안(琴藏落雁)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구전이기는 하나 금장대(金藏臺)를 거문고 금(琴)자를 넣은 금장대(琴藏臺)로 불렀다는 새로운 사실이 “해은시집海隱詩集”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경주, 한시로 읽다. 조철제 경주문화원장 저)

금장낙안 琴藏落雁

古琴藏上已藏琴	고금장상이장금 옛 금장대 위에 거문고 숨겨두었는데
江畔雁踪化石沈	강반안종화석침 강가 기러기 발자취에 돌로 변해 묻혔다.
雲物無窮城樹老	운물무궁성수로 무궁한 경치 속에 성과 나무는 늙었고
風光不沒野烟深	풍광불몰야연심 풍광은 깊은 들녘에 인몰되지 않았구나.
世傳百結仙翁事	세전백결선翁사 백결선생의 사적이라는 말 전해오나
水滸千年舊國音	수흥천년구국을 물소리는 천년 고국의 소리 전한다.
荒臺南北平沙外	황대남북평사의 황량한 누대 앞 넓적한 모래밭에
白鷺時回上下尋	백로시회상하심 해오라기 이따금 저절로 찾아든다.

안동권씨좌윤공파사정세보(安東權氏佐尹公派司正公世譜)에 따르면 해은공(海隱公, 휘諱 영도寧燾 34世) 시인은 행行 통훈대부(通訓大夫) 및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충청도관찰부(忠淸道觀察府)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전석을 하신 관재운(權在運,1855~1915)공공과 숙인(정3품이나 당하관 부인에게 임금이 내리는 봉호) 김해김씨(金海金氏) 사이에서 9남매 중 막내(1906~1993)로 경주 내남 동굴 안동권씨 집성촌에서 태어났다.

경주 임진의병장이시자 좌승지 경영참찬관, 효행으로 정려(旌閭)를 받으신 매헌(梅軒 휘諱 사민士敏)공이 10대조이시며 병조. 예조 정랑과 경주병마절제사를 지내신 귀봉공(龜峰公, 휘諱 덕린德隣)이 11대조,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경상도 연일 대장산으로 유배를



해은공영정



세덕가

오셨다 경주향에 뿌리를 내리신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이 15대조이시다.

호(號)는 해은당(海隱堂), 자호가 치헌(致賢)이시다.

백석(白皙, 몸 색이 희고 빛나다)의 모습은 얼음을 담은 향아리처럼 맑고 깨끗한 빙(氷壺) 같고 잡된 것이 안과 밖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어서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길을 나서면 쳐다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한시와 성리학으로 내면을 채운 선비이었지만 생애는 그리 평탄치 못했던 것 같다. 성장기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 조모(祖母)가 약사발을 끼고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20살을 넘길 무렵 맹장염에 걸려 대구에 가 수술을 받고 회복기를 넘어서는 시기가 첫



성금권

번째 전환기로 짐작된다.

첩약(貼藥), 신침(神鍼)으로 추앙받다.

가첩(家牋)엔 대구병원에서 경주 집에 돌아온 날로 경주 배리 스승의 사랑채에서 근사록(近思錄) 대신 한의학(韓醫學)서를 끼고 살았다고 기록됐다. 경주 배리(拜里)에서 의생(醫生) 수련 서너 해 만에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한약생시험(韓藥醫試驗, 1930년대 말로 추정)에서 수석합격을 하셨다.

이같은 사실은 같은 날 응시했던 조인좌(趙仁佐, 항일 독립지사로 경주에서 대자원大慈院과 한의원韓醫院 부용당美蓉堂을 경영)옹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1945년 경주 건전에서 개원했다 5년 뒤 경주시 남침(탐정동)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됐으며 첩약(貼藥)의 명(名醫)로, 또 신침(神鍼)이란 명성을 얻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희귀병이었던 당뇨와 황달, 부인병(婦人病)의 명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침(鍼)만 놓아주고 계란 한 줄조차 사양하는 신침(神鍼)으로 소문이 나 멀리 부산 언양 영천 등 전국에서 찾아온 것으로 기록됐다.

한학(漢學)의 신이 되다.

短筇接是對斯文(단궁접시대사문)
同詠一山一海雲(동영일산일해운)
濤許淸風遊俠子(반하정풍유협자)
路傍紅巾戍營軍(노전홍시수영군)
忘機閑鷺雙雙立(망기한로쌍쌍립)
得趣鳴榔間間聞(득취명조간간문)
暇送東南明月外(안송동남명월외)
塵仙兩界半相分(진선양계반상분)

〈포항수도산오월시회浦項水道山五月詩會 장원수상작상壯元受賞作賞에서: 시인은 당시 군사, 근로자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뒤로하고 명사십리로 이름난 아름다운

짧은 지팡이 짚고 문우들 만나
산과 바다를 시제로 삼아 함께 읊으니
문사들은 물가 맑은 바람에 노닐고
군사들은 시내 저갯거리로 진을 친다.
세상일 잊은 해오라기는 쌍쌍이 날고
때를 만난 매미 소리는 간간히 들린다.
동남 쪽 밝은 달 바깥을 바라보니
속계와 선계가 서로 반으로 나뉘었어.

충민공 죽림 권산해 선생 추모 전국 한시백일장



노봉서원

조선 6대 임금 단종 사화 때 순절하신 충민공(忠愍公)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 선생을 추모하는 전국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이 한국한시협회(韓國漢詩協會) 예천지회(禮泉支會)의 주관으로 열린다.

미리 지은 한시(漢詩)를 9월 10일까지 전국 한시협회(漢詩協會) 예천지회로 제출하는 지상백일장(紙上白日場) 형식이다. 9월 중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집으로 출간하게 된다.

시제(詩題)는 “추모追慕 충민공忠愍公 권산해權山海 선생”이며 진眞, 신新, 인仁, 진塵, 빈彬 다섯 자가 압운(押韻)이다. “충민공忠愍公 권산해權山海 선생”은 태종 3년(1403) 예천 용궁 대죽리에서 경력공(經歷公, 휘諱 관寬)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종이 내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과 북백(北伯, 한경도 관찰사), 대호군(大護軍)을 거절한 고려의 절신, 송고공(松阜公, 휘諱 조輶)의 손자가 된다.

1423년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尊)의 맏딸과 혼인, 문종(文宗)과는 손윗 동서, 단종(端宗)의 이모부가 된다. 이로써 대과(大科)를 포기하고 녹사와 주부에 제수 됐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문종 2년(1452)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어린 임금 단종의 장래를 당부하는 유조(遺詔)를 받들고 종부시 첨정으로 출사를 했다.

단종이 양위하던 해, 세조가 내린 찰방(察訪) 직을 던지고 조부(祖父, 송고공松阜公)가 은거했던 예천으로 낙향, 복침읍의 세월을 보내다 1456년 사육신(死六臣)의 단종 복위 거사가 실패한 사실이 전해지던 날 누대에 올라 생(生)을 놓으니 이때가 54살.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 동생)과 두 아들이 공을 염송산(念松山)에 모셨으며 후손들은 변방으로 좌사되고 100년간 금고형(禁錮刑)에 묶였다.

명종(明宗)이 재위했던 1556년 금고형(禁錮刑)이 풀렸으며 정조 13년(1789) 후손 갈산공(葛山公, 휘諱 종락宗洛)의 격쟁으로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 금성단에 이름을 올렸다.

갈산공이 정조 임금이 내린 교지를 용궁 묘소에서 봉고(焚誥, 임금이 내린 교지를 불로 사르는 것)를 행할 즈음 마른 날에 무지개가 뜨는 이적(異蹟)이 일어나 공(公)의 충절 정신을 두고 감읍하지 않는 사대부들이 없었다고 한다.

충민공에게 내린 두 번째 가증은 고종 21년(1884년)에 있었다.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충민(忠愍)이란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정부인(貞夫人)은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가증됐다. 경주 윤곡서원과 예천노봉서원에 배향됐다.

해빈 모습을 칠언시七言詩에 강하게 나타냈다.〉

해은공 시인은 바닷가 도시 포항에서 한학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이의 직장을 따라 삶의 근거지를 포항으로 옮긴 해(1976)부터 한의(韓醫)는 내려놓는 대신 철학(哲學)이 된 예학(禮學)과 한학(漢文學)으로 삶 속을 파고들었다.

당시 포항은 인구 5만 명의 어촌, 군사도시에서 포항제철(포스코) 건설의 붐을 타고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흥절강 도시여서 반촌(班村) 문화가 뿌리를 내린 경주와는 달랐다.

수원김씨(水原金氏), 안동권씨(安東權氏), 여주이씨(驪州李氏) 등 사성(四姓)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와 예학(禮學)을 지키는 수준이었다.

이들 가문이 필요로 한 비석 음기(陰記, 비석 뒷면에 새긴 글)나 묘갈명(墓碣銘), 재사(齋舍) 상량문, 고유문예다 사주(四柱)단자까지 한문으로 글을 짓는 딱 한 사람뿐인 한학자(漢學者)가 되었으며 부산 대구 경주 영천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림(儒林)들로 이어져 글을 짓는 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사랑채에서 늘 기다렸다고 한다. 이때 얻은 필명이 “한학의 신”이었다.

신선이 사는 곳, 죽도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고려 말인 1349년, 이곡(李穀, 1298~1351)은 8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38일간 동해안을 유람하고 ‘동유기(東遊記)’를 남긴다. 비 때문에 양양에서 이틀을 머물고 강릉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이틀을 묵는다. “10일에 동산현(洞山縣)에서 유숙하였는데, 그 곳에 관란정(觀欄亭)이 있다. 11일에 연곡현(連谷縣)에서 묵었다” 관란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관란정을 ‘동산현(洞山縣) 동쪽 2리에 있다’고 알려준다. ‘죽도(竹島)’를 함께 설명하는 기사가 실려있다.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닳고 갈려서 교묘하게 되었고, 오목한 속에 자그마한 둥근 돌이 있다. 전설에는, “둥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므로 닳아서 오목하게 된 것이며, 다 닳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

섬 전체가 소나무 사이로 대나무가 촘촘하다. 이 때문에 죽도라 이름을 얻었다. 대나무 사이로 커다란 바위에 주절암(駐節巖)이라 새긴 글자가 보인다. ‘주절(駐節)’은 ‘부절(符節)을 멈춘다’는 뜻으로 머물거나 쉰다는 뜻이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죽도가 아름답다는 표시이다.

정상에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절제 전망대가 우뚝하다. 북으로 하조대, 남으로 주문진이 반짝이는 물결 옆에 빼죽이 나왔다. 죽도정(竹島亭)에 앉아 잠시 쉬다가 해안으로 내려가면 기기묘묘한 바위 형태에 입이 벌어진다.

풍화가 심한 이곳저곳에 신선과 관련된 이름을 붙였다. 연사대(煉砂臺)는 연사(煉砂)는 제련하여 단사(丹砂)를 만드는 곳이다. 갈



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 “모든 초목은 태우면 재가 되지만 단사는 태우면 수은이 된다. 태우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도로 단사가 되는데, 이를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라 한 것처럼 단사는 장생불사(長生不死)를 목적으로 하는 신선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청허대(淸虛臺)에서 청허(淸虛)는 노장의 학설인 청정허무(淸淨虛無)를 말한다. ‘장자(莊子)’에 “빈방에 햇살이 비치니 거기에 좋은 정조가 깃든다. [虛室生白, 吉祥止止.]”라는 구절이 있는데, 청허(淸虛)하여 욕심이 없으면 도심이 절로 생겨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욕심이 없는 청허한 상태가 되면 갈매기도 경계심을 풀게 되고, 함께 노닐 수 있다. 갈매기와 희롱하며 함께 노닌다는 농구암(弄龜岩)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방선암(訪仙岩)은 신선을 찾아 출발하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다시 보자. 죽도를 설명하면서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닳고 갈려서 교묘하게 되었고, 오목한 속에 자그마한 둥근 돌이 있다.’고 했는데, 풍화현을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라 본 것이다. 상상력을 더해 신선이 여기서



단사를 만들었다고 여겼다. 윤증(尹拯, 1629~1714)은 ‘죽도의 돌 구유를 읊다’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관란정 아래서 가벼운 배를 불러 타고 觀欄亭下喚輕
푸른 죽도 앞에 와서 작은 구유 보았네 蒼竹島前看小槽

이해조(李海朝, 1660~1711)는 양양 지역의 뛰어난 경승 30곳을 읊었는데, 그 중 ‘죽도의 신선 절구[竹島仙臼]’는 이곳의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당나라 때 이적지(李適之)가 현산(峴山)에 올라가 한 말 술을 부어놓을 만한 바위 구덩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와준정(窪樽亭)을 세우고 놀았다고 한다.

이적지가 오른 현산(峴山)은 양양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양양 부사인 이해조는 중국의 고사를 빌려와 시를 지은 것이다. 절구 안에 있는 둥근 돌이 다 닳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전설을 떠올리는 이해조의 눈에 죽도는 신선이 사는 선경(仙境)이었다.